

도교육청, 체육회와 '학교체육 활성화' 협력

서거석 교육감, 정강선 전북체육회장과 만나 현안 논의
"쾌적한 체육환경 속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토록 노력"

서거석 교육감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체육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6일 서 교육감은 체육회관을 방문해 정강선 회장과 학교 체육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정 회장은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한 뒤,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학교 체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 5월 교육감 후보 당시 전북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차기 교육감에게 전북체육이 바란다' 정책간담회에서 "당선되면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전북체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최근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정강선 회장은 "학교체육이 바로 서야 건전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전북이 학교 체육 발전의 선도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해 강력한 교육 협력으로 전북 교육을 살려내겠다"며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쾌적한 체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6일 전북체육회관을 찾은 서거석 교육감(사진 가운데)이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참가 초·중학생 선발

전북체육회, 15일까지
참가비 무료·28일 열려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캠프)에 참여 할 학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스포츠안전교실(7월)과 스포츠안전캠프(8월)에 참가할 초·중학생을 선발한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체육활동 교육을 제공, 스포츠 안전의식을 높이고 체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안전교실은 오는 28일과 29일 총 2회에 걸쳐 컬링과 빙상 종목에 대한 체험과 강습이 이뤄진다. 모집인원은 1회당 80명이다. 스포츠안전캠프는 1박2일 일정으로 전북교육청학생체육관(부안)에서 열린다. 스포츠안전캠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룹으로 분류, 각 8명씩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해양안전·실전체험 등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단체 또는 개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체육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영재복지과(063-260-882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잡겠다는 여자축구 지소연

"동아시안컵 우승해야죠"

女대표팀 소집 훈련... 19일 일본과 동아시안컵 첫 경기
"아시안컵 준우승, 놀라운 결과... 전적 바꾸는건 우리 몫"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에이스 지소연(수원 FC)이 2022 동아시안컵(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일본을 잡겠다고 밝혔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지난 5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입소해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가량 구슬땀을 흘렸다. 지소연도 선수들과 런닝부터 트레이닝 패스 그리고 미니게임 등을 함께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무더위 날씨에도 지소연은 어린 후배들을 장난을 치며 훈련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 미니게임에선 에이스다운 빠른 몸놀림을 선보였다. 지난달 27일 국제축구연맹(IFFA) 랭킹 6위 이자 도쿄올림픽에서 여자축구 금메달을 딴 강호 캐나다와 0-0 무승부로 자신감을 얻은 여자 대표팀은 다가오는 동아시안컵(EAFF) E-1챔피언십에서 17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 여자 대표팀은 동아시안컵에서 2006년 우승 이후 준우승만 두 차례 차지했다. 훈련 후 취재진과 만난 지소연은 "동아시"

안컵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간다. (박)은선 언니와는 처음 나가는데 실렌다 이 대회에서 항상 3위만 했었는데, 저 없을 때는 2위도 있었다. 이제는 팀이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강호다. 첫 경기가 일본이라 부담이지만 오히려 잘 됐다. 어느 팀이든 첫 경기가 굉장히 힘들다 일본도 힘들 것이다. 우승하려면 일본을 잡아야 하는데 첫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동아시안컵 여자부에서 세 차례(2008년, 2010년, 2019년) 우승한 강호다. 지난 2019년 부산 대회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져 준우승했다. 이번 동아시안컵 여자부 경기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가시마에서 펼쳐진다. 개최국 일본과 한국, 중국, 대만 총 4개 팀이 풀리그로 우승을 가린다. 한국은 19일 일본과 첫 경기를 치른 뒤 23일 중국, 28일 대만과 차례대로 붙는다. 지소연은 "일본에 열세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이 여자축구를 훨씬 빨리 시작했다. 축구인도 큰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아시안컵에



서 준우승한 건 놀라운 결과다. 앞으로 일본과의 전적을 바꾸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했다. 8년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5월 한국에 돌아온 지소연은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여자실업축구 WK리그에 입성했다. 하지만 엔트리 등록 문제로 당장 경기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지소연은 "경기를 많이 쉬면서 체력과 경기력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오랜만에 동아시안컵에 나서는 만큼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3위를 해봤는데, 최고 성적을 내고 싶다"고 했다. 지소연은 2013년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에 출전해 3위를 한 바 있다. 이후엔 유럽에서 뛰느라 동아시안컵엔 나서지 못했다. 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IFFA)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라 아니라 소속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지소연은 "헬스에서 땀 때는 영국에서 와서 이를 정도 훈련하고 경기에 나섰는데, 지금은 국내에 있다 보니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시간이 충분하고, 시차적응도 수월하다"고 했다. 이어 "조소현(토트넘), 이영주(마드리드 CF) 등 해외파들도 빨리 들어와 같이 연습해서 좋다. 이금민(브라이튼)이 소속팀 반대로 합류를 못 했는데, 잘 해결해서 같이 갔으면 한다"고 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테니스대회
익산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익산시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테니스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7일부터 10일까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테니스협회, 전북도테니스협회, 익산시 테니스회회가 주관하며 익산에서 후원하는 테니스대회를 마동테니스공원과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 실내·외 총 14명의 코트 등 쾌적한 시설을 갖춘 마동테니스공원이 준공되면서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의 테니스대회로 총 4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정규 대회는 7~8일에 열리는 남·여 어르신부 대회에 이어 9~10일에는 개최식 남·여 일반부 및 지도자부 대회가 각각 예선과 본선 순으로 치러진다. 예선은 각 조별 리그전으로 3복식 경기로 실시되고, 본선은 각 조 1, 2위 팀이 토너먼트 방식을 통해 3복식 2선승제로 치러진다. 전북팀은 지난 201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테니스대회에서 어르신부 1위, 지도자부 4강, 일반부 4강으로 종합 2위 성적을 낸 바 있다. 테니스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대한테니스협회TV)과 네이버스포츠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